

사회

# 장휘국 교육감 外高 설립 직권철회

### 교과부 최종 판단 영향 미칠 듯 ... 뒤바뀐 교육행정 시민 불신 초래

## 심의위 무산 '들러리' 논란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전임 교육감 재임 당시 교과부에 제출된 광주 외국어고 지정 협의(승인)신청을 직권철회했다.

이 결정은 사실상 협의신청의 철회를 검토하기 위해 이날 개최한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심의위원회'가 무산된 직후 내려진 것이어서 심의위를 절차상 '들러리' 세우려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또 신설직 교육감들의 교육철학이 상반돼 행정이 뒤바뀌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2일 오후 브리핑룸에 둘러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 대광역고의 외국어고 지정 협의신청을 직권철회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심의위에서 외교 지

정 철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재심의 안건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교육감이 정지적으로 판단을 내려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장 교육감은 "해당학원의 투명하지 못한 재단운영,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후 장기간 신고를 미룬 점 등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판단에 주목된다. 외교 지정(승인)권을 쥐고 있는 교과부가 장 교육감의 결정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으로, 전임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후임 교육감이 또다시 법과 규정을 틀어 칠수 있는 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의 위원들은 회의장 공개란이 예상된다. 심의위가 교육청이 제시한 재심의 개최사유의 타당성을

놓고 표결했을 때,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기존 외교 지정 신청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장 교육감의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 재심의 시도에 제동을 건 한국이 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협의신청을 직권철회해 절차상 당위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를 내세운 뒤 여의치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최종판단에 주목된다. 외교 지정(승인)권을 쥐고 있는 교과부가 장 교육감의 결정을 수용하느냐가 관건으로, 전임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후임 교육감이 또다시 법과 규정을 틀어 칠수 있는 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심의 위원들은 회의장 공개란이 예상된다. 심의위가 교육청이 제시한 재심의 개최사유의 타당성을

한 재심사유의 타당성을 놓고 1시간 30여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

결국 위원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재심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표결을 거친 후 심의를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재심사유는 국경감사 위원들과 광주 시의회(교육위원회)의 반대, 해당 학원이 출연을 약속한 수익용 재산의 취득신고를 10여년 미룬 점 등이다.

부교육감인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한 표결결과 찬·반이 6대6으로 팽팽히 맞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투표 참가자의 과반을 넘겨야 한다는 회의규칙을 충족하지 못해 심의가 무산됐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전임 안순일 교육감 재임 당시 외국어고 설립을 위한 지정협의를 교과부에 신청한 상태며 오는 26일까지 최종 결과가 통보될 전망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영화 '부당거래' 흥행 경찰 "달갑지 않네요"

###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

경찰청 광역수사대 최철기 반장. 매년 순진에서 제외되던 최 반장은 상부로부터 승진을 조건으로 '부당거래'를 제안받는다.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가짜로 만들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 결국 최 반장은 사건과 무관한 성폭행 전과자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송치한다. 그러나 담당 검사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일이 꼬이지만, 최 반장은 끝내 자신의 팀 동료 형사까지 살해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 가공의 사실을 엮어낸 픽션이지만 경찰

들은 '영화를 보는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광주남부경찰서 A경장은 "우연히 친구와 함께 '부당거래'를 봤는데 얼굴을 들 수 없었다"면서 "왜 영화에서는 경찰을 부정적으로만 그려내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경찰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일 일은 아니다. '투깝스'부터 '살인의 추억'과 '추격자' 등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매번 범인을 코앞에서 놓치는 무능과 비리집단으로 비쳐지고 있다.

회사원 김모(36·광산구 월곡동)씨는 "과장된 부분은 있었지만, 영화속 경찰의 모습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영화를 닮았기보다는 경찰 스스로 믿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나원침 (8168) 김종두



## 승용차 바다 빠져 사망 선원 낙뢰 맞고 추락사

전남지역 바닷가에서 차량 운전자와 선원이 잇따라 바다에 빠져 숨졌다.

지난 11일 밤 10시15분께 여수시 봉산동 선착장 인근의 좌로 굽은 커브길에서 남모(36·여수시)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바닷가로 추락한 것을 낚시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구조대와 119구조대는 바다에 빠진 승용차에서 남씨를 꺼내 올렸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이날 오후 5시20분에는 고흥군 금산면 신전리 우두마을 인근 해상에서 1.3t급 소형 여선에 타고 있던 광모(56)씨가 바다에 빠져 해양구조대가 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8시30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광씨는 선장(52) 등 3명과 함께 인근 전북 양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임항하던 중이었다.

해경은 "어선이 낙뢰에 맞은 직후 광씨가 바다로 빠졌다"는 선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고객 돈 38억원 '꿀꺽'

### 목포경찰, 새마을금고 부장 등 2명 구속

목포경찰청은 12일 고객 예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목포 새마을금고 부장이모(46)씨, 상무 박모(45)씨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과장 명모(41)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전 전무 정모(64)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며 고객의 예탁금을 자신의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시킨 뒤 이를 담보로 대출서류를 꾸며

2004년부터 160차례에 걸쳐 3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부장 이씨는 이 금고의 S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금고 내부의 감시와 통제 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동일한 수법으로 2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에서 "빼돌린 돈을 금고의 부실채권 납부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12일 새벽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한 경북 포항시 인덕노인요양병원 1층에서 경찰 감식반원들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10명 사망

### 광주·전남 노인 요양시설 총 324개소 7천여명 이용

### 치매·중풍환자들 피해 ... 17명 부상

중증 치매 또는 중풍 환자들이 수용하는 경북 포항의 한 사설 노인요양원에서 불이 나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12일 새벽 4시 24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덕노인요양센터에서 전기 합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김모(여·87)씨 등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다. 사망, 부상한 노인은 모두 여성으로 확인됐다.

불은 전체 2층 건물 387㎡ 가운데 1층 사무실 16.5㎡를 태우고 30분만에

진화됐으나 사상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의 치매 또는 중풍 환자들이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질은 연기에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전원은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맞은편 방에서 잠자던 중 변을 당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대와 200여명의 인력이 출동, 진화에 나섰다.

불이 난 요양원은 27명을 수용하고 있는 여성 전용의 2층 건물로 1층에는 사무실과 노인들이 머무르는 3개

방의 방이, 2층에는 5개의 방만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사망자들은 모두 1층 수용자들이었다.

또 화재 발생 당시 1층과 2층에 각각 1명씩의 근무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불을 처음 발견한 야간안전관리인 최모(여·63)씨는 "잠을 자던 중 불빛이 보여 나가보니 사무실에서 불길기 치솟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들을 포항의료원과 포항기독병원, 포항성모병원, S병원 등 4곳으로 후송했다.

/연합뉴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고교생 폭죽 물고 장난치다 입에서 '퐁'

전남지역에서 10대들이 폭죽놀이를 하던 중 숨지거나 부상을 입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전남 밤 9시경 순천시 연향동 한 주차장에서 장모(17·고교 1년)군이 입에 물고 있던 5cm 길이의 폭죽이 터져 입을 다쳤다. 장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날 중학교 동창 2명과 함께 연향동 한 문구점에서 폭죽을 구입한 장

군은 폭죽을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다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군의 친구들은 "폭죽에 불을 붙이는 순간 '퐁'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1일에는 김모(12·초고 5년)군이 고흥군 과역면 자신의 할아버지 집 인근에서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50여일 만에 숨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5분 / 해질 17시 28분 / 달돋이 12시 47분 / 달질 23시 56분

**살살한 아침**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았다.

광주	맑음	6/19℃
목포	맑음	7/18℃
여수	맑음	10/17℃
나주	맑음	2/19℃
완도	맑음	4/19℃
구례	맑음	1/19℃
예남	맑음	1/19℃
장흥	맑음	1/19℃
고흥	맑음	1/20℃
순천	맑음	5/19℃
영광	맑음	3/19℃
진도	맑음	2/19℃
전주	맑음	4/19℃
남원	맑음	-2/16℃
옥산도	맑음	11/17℃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9/14	3/11	3/13	5/15	5/16	5/17

### 생활 게시판

**회속**

- ▲김원철·서인숙씨 막내 형동군 김화자씨 막내 조옥순(광주일보 총무)양=13일(토) 낮 12시 그랑시아에블루전원빌 2층(크리스탈홀)
- ▲김병길·정유순씨 막내 형규(주식회사 푸른농원 감사)군 김순애씨 장녀 김선미(KT)양=13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 상무지구 에블루전원빌 3층
- ▲김태욱(한나라당 광주시 동구 당협위원장·전 광주케이블방송국 사장)·임정진(미희씨) 장남 창국(조경건축 디자이너)군 황점순씨 장녀 오영미(제주 한국병원 신경과 과장)양=13일(토) 오후 5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
- ▲박성인(강진교육장)·김영희(나리김정 광주전남본부)씨 장남 성
- 준군 윤성문(성원건설 대표)·박익이씨 장녀 미주양=13일(토) 낮 12시 상무지구 호텔 예술의 전당 5층.
- ▲정영덕·양영심씨 장남 대웅군 이신호·서점자씨 차녀 미라양=13일(토) 오후 1시 40분 퍼오레 웨딩컨벤션 2층(모던홀)
- ▲조병건(일산정보기술 대표)·김순옥씨 장남 우형(해군 대위)군 이득복(건설업)·한해순씨 장녀 은주(광주 시티요양병원)양=14일(일) 오후 1시 광주 상록웨딩홀 3층(무궁화홀)
- ▲이길동(해남군 홍보담당)씨 별세 승재·선재씨 부친상=발인 14일(일) 해남 현대장례식장. 061-537-2222.
- ▲나인갑씨 별세 김성수(미래상사 대표)·강수·면수·원수(담양 이비인후과)·명숙·옥영·희숙씨 모친상=발인 15(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1.

**상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故 임광임 님(여/97세)**  
 7/7호: / 김오래, 삼남중 / 김옥심 / 윤중 / 김금자, 전옥 / 보영 / 女 / 夫: 심사순 / 은희 / 이승현, 연실 / 선영배  
 • 호실201호 • 발인: 11월 14일 • 장지: 담양천주교

**故 남정우 님(남/73세)**  
 7/7호: 남기모 / 박미정, 재순 / 부연경 / 女 / 夫: 남삼일 / 지천수, 선미 / 김영남, 선이 / 정규준  
 • 호실301호 • 발인: 11월 13일 • 장지: 화산양양선원

**故 안삼심 님(여/76세)**  
 7/7호: 나순수 / 용수 / 김모순 / 女 / 夫: 나순수  
 夫: 나삼익, 무연, 고윤환, 민정  
 • 호실401호 • 발인: 11월 14일 • 장지: 영락공원

**故 정순옥 님(여/76세)**  
 7/7호: 이완선 / 김옥래, 교섭 / 탁연순, 겸실 / 女 / 夫: 이희자 / 양인선, 민숙 / 임몽모  
 • 호실402호 • 발인: 11월 13일 • 장지: 영광묘당선원

**추 금호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노승현 씨 부친상 신관용, 김경호 씨 부친상 장지: 고흥읍 호산연락처: 250-4411  
 발인: 11월 13일(토) 07시30분  
 ▲김용호·봉호·인호·경호·동호·성호·명호 씨 장지: 고흥읍 호산연락처: 250-4411 부친상 최대석 씨 부친상 발인: 11월 13일(토) 08시00분  
 ▲류원진·차진·영민 씨 모친상 이정태, 김용 08시00분  
 진, 정인수, 박갑순 씨 부친상 발인: 11월 13일 장지: 강진읍 선영연락처: 250-4409 (토) 07시30분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유치장은 싫어" 50대 피병 소동

○음주운전 벌금을 내지 않아 경찰서로 임의동행된 50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처럼 속여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벌금 14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중이던 김모(56)씨는 술에 취해 지난 11일 밤 9시경 서구 관촌동 한 주택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확인 결과 수배 사실이 드러난 것 같아 밤 10시30분경 경찰서에 도착한 뒤 쓰러져 119구급대가 출동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유치장에 임박되기 싫어서 '머리가 아프다'며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쓰러진 척'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병원이기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는 담담 형사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피병이 들뜬.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